

정책 동향

남북 전기규격 일치화 전망

북한이 최근 전기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준회원으로 가입, 남.북한 전기관련 규격 일치화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1963년 회원으로 가입했던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자격을 1994년 국가 분담금 미납으로 상실했으나, 이번에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IEC 준회원으로 또 다시 복귀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북한의 이번 IEC가입과 관련, 최근들어 세계화 추세로 인해 각종 산업규격이 일치화되고 있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이 적극적인데 동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1991년 이후 불참해 왔던

ISO(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도 99년부터 계속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가운데 산업인프라 측면에서 국가표준의 통일이 필수적이며, 전기분야에서의 상호간 규격 일치화도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ISO 개도국지원프로그램(DEVCO)에 의한 국제회의의 참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측면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일·중 인증공유

한·일·중 3국의 경영시스템 인정기관간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가 한국인정원 회의실에서 체결됐다.

한·일·중 인정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양해각서는 3국의 경영시스템의 협력을 강화해 신뢰성을 증진하고, 상호간 인정마크의 공유 또

는 인정기관간 무조건 인정 등의 방법을 통해 3국의 인증기관 및 기업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2000년 국내 경영시스템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원과 일본의 적합성평가인정협회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국인정원이



정책동향

지난 2001년 11월 일본측에 중국을 포함할 것을 제의,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양해각서체결을 발판으로 향후 3국간 ISO 인증서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에서 획득한 ISO 인증이 중국과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아 이들 국가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경영시스템 뿐만 아니라 제품 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들의 상호인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업에 자금투입 본격화

정부는 올해부터 착수한 종합기술지원사업의 제1차 지원 대상기업으로 (주)재영솔루텍 등 24개 부품소재기업을 선정하고 총사업비 40억원중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부품소재통합 연구단 소속 16개 전문기관의 고급연구인력을 파견 받아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종합기술지원사업은 국내 부품소재기업들이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전문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정부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함께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올해 1차로 '반도체 리드프레임 통합금 재료개발' 등 25개 과제(29개 기업)를 선정 연말까지 190억원을 포함, 3년간 총 38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9개 선정기업은 지난해 11월 공고한 220개 개발대상 핵심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지원을 신청한 기업으로서 엄격한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한·중 투자협약의 채널 출범

한·중 투자확대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협의체들이 공식 출범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스광성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신국환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중국측의 민간 추진기구 설립과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 중국 관련단체와 기업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스광성 부장은 이에 대해 "민간기구의 설립문제에 대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겠으며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에는 많은 전문가를 파견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동향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상호간 투자확대 및 투자정책 교환 △양국의 투자애로사항 건의 △양국간 투자협력 제안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협력 △기타 양국 관심사항 등 5개 의제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측은 5개 의제 가운데 대중국 전략적 투자확대를 위해 유연탄 등 자원개발사업과 승용차 합작생산, 금융·보험업 진출확대, 베이징 올림픽 관련 건설사업,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측은 또 중국 광동성

LNG인수기지 건설사업 및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국측은 중국의 농업·교통·자원·부품소재·첨단기술·환경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확대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같은 기반조성을 위해 한·중투자기금 설치, 투자정보교류시스템구축, 민관합동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세부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대학내 기업연구소 설립

내년 3월부터 대학부지 내에 기업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소가 들어선다. 또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돼 실질적인 산학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대학에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 별도 회계로 운영하여 대학이 산학협력의 성과로 올린 수익을 다시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부지 내에 기업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소를 유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 확충과 학교재정 확충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법개정내용은 전자관보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대학교수와 산업체 관계자 등 산학협력 현장에서의 많은 의견을 개진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책동향

해외규격 800개사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들어 두번째로 800개 업체를 선정,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와 협약을 체결, 정부지원금의 50%를 착수금으로 지원받고 인증획득이 완료되면 잔금 50%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해외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규격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업무를 대행케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고 70%,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 총 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천5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올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증획득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총 3차에 걸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미 지난 1월, 1차 사업으로서 65억원의 예산으로 1천345개 업체를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2차 사업에서는 1천874개의 신청업체중 800개 업체를 선정,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업체나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11일까지 접수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 신청접수 시기에 신청업체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근로자 안전인증제 시행

산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인증 제도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OHSM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영시스템을 규격화해 이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영국표준협회(BSI)의 주도로 선진 13개

국제인증컨소시엄에서 합의해 제정한 OHSA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18001 규격을 한국산업규격화(KOHSMS 18001)한 것이다. 이 제도는 ISO 9000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시스템에 따라 '산업재해위험관리'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ISO 9000 시스템의 파생적·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인증심사시 ISO 9000 심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는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문경영체제 인증제 도입기반 구축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올 4



정책동향

월까지 산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경영체제 시범인증 실시를 거쳐 이번에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 주관은 한국인정원에서 맡게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가 시행됨으로써 기업은 체계적인 산업재해 위험관리를 통

해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년 노동부의 재해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간 2천528명, 1일 평균 6.9명이며 경제적 손실액은 7조3천여억원에 달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기업 대상 산업정책 설명회

지방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자원정책 설명회'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서 개최된다.

산업자원부는 5월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면서 지방 상공회의소 회원사에게 주요 산업자원시책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방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들어 이를 산업자원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주로 다룰 내용으로는 △2002년 경제상황과 산업자원정책 방향 △제조물책임법 대책 △유통산업 시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취지와 내용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 내용 등 5개 주제다.

초고압기기 자동제어반 수출 적극 지원

산업자원부는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으로 국산화한 초고압 전력기기, 자동제어반 등을 고부가가치 수출주력상품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오는 2007년까지 중전기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6%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중전기산업발전과 해외수출확대를 위해 극간 콘덴서 불용형 가스차단기, 수출용 초고압

가스절연개폐기, 차세대 분산제어시스템, 이동체용 통합감시시스템 등 초고압 전력기기와 자동제어반을 수출주력상품으로 선정, 해외수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소형발전기, 주상용 변압기 등 지역별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 턴키베이스 형태로 수출키로 했다.

산자부는 오는 2007년까지 중전기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3%에 불



정책 동향

과한 중전기산업의 기술개발투자비율을 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중전기산업의 R&D 투자확대를 통해 중전기산업의 기술기반의 자립도와 신기술 개발능

력을 확보, 세계7위권 중전기 산업국으로 도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클린사업장 조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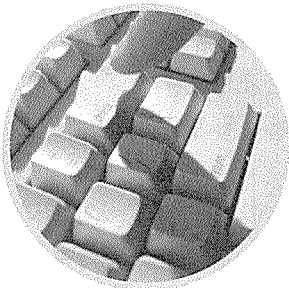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도 기준만 충족하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최고 3천만원까지 무상 지원을 받게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불편 해소 차원에서 클린사업장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조성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산업안전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 및 건설 사업장이 3D요인을 개선하여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 업체당 최고 3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며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한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도 '3억 미만 건축공사'에서 '10억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며 프레스, 직기 작업과 같이 소음개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음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등 사후관리 대책이 적절하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2일 현재까지 총 1만176개소 신청사업장 중 2천696개소에 대해 자금지원을 결정했으며 665개소 사업장을 클린사업장으로 인정했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